

# 역사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건축 시스템 연구

## A Study on the Sustainable Urbanism and Architectural System in the Historical city

김 미 선\*      손 승 광\*\*  
Kim, Mi-Sun      Sh.on, Seung-Kwang

### ABSTRACT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thesis aims to utilize the history and culture of cities as resources and to solve the problems of modern urban environment which can produce non-personal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is study deals the Sustainable Urbanism and Architectural System in the Historical city ; First, Historic resources and its spatial characteristics. Second, reused resources and remodeling of existing building. Third, Sustainable design component and management process.

Historic resource are not only a cultural and spatial aspects but also it have potential importance in environmental aspects. Sustainable urbanism and architectural environment are cultural resource and it can be enhanced by long term established spatial orders. In order to keep the order, rehabilitation, reuse, remodeling of urban space should be managed by various participations which concerned with the city and urban architecture. That can be say systematic approach for the sustainable environment.

Keywords : Sustainable Architecture, Systematic Architecture, Systematic Urban Architecture,

주요어 : 지속가능한 건축, 도시건축, 시스템건축, 시스템도시건축

## I. 서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도시는 인류문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그 안에 역사와 예술이 있고 기술과 사상, 정치와 종교 등 인간집단의 발자취를 가늠할 수 있는 모든 단서들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조형되는 역사도시의 경우 이미 도시 자체가 그 안에 담겨진 개인과 집단의 속내 깊은 사연들을 증언하는 기록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sup>1)</sup>

오래된 인간의 삶의 흔적을 담고 있고 역사적 환경은 오랜 세월에 걸쳐 그 지역 고유의 문화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면서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화, 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안게 되고, 이러한 시대변화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이유, 혹은 역사도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로 점차 전통적인 도시구조와 가로 파사드, 도로체계, 도시 외부공간 등은 완전히 해체되어 가고 있다.

특히 신도시나 신개발 위주의 도시정책과 기존 도심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미약한 투자와 근대 이후 기능주의나

국제주의 양식의 건축물들로 무분별하게 채워지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공간과 건축물들이 파괴되면서 모두 똑같은 개성 없는 도시로 퇴락해 왔다는 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역사도시의 잠재력은 새로이 인식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자기 문화, 지역성에 맞는 보존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국제적인 논의거리로 발전되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 도시 계획가, 건축가 등 전문분야에서도 역사적인 의미 이해와 이를 도시 구조에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부족하였고 도시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제적인 관점으로 시민들의 의견에 합류하면서 도시구조를 바탕으로 한 역사의 의미는 거의 상실되어 가고 있다. 또한 몇 안 되는 역사물은 독립적으로 남아 박물관 전시형태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가 경제성장이 우선시된 고밀도 위주의 도심 개발사업과 도시 기반확충의 명목으로 도시외곽의 개발에만 눈을 돌리고 있을 때, 역사성의 단절을 비롯하여 심각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문제, 역사도시의 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럽이나 일본 등은 환경공생과 에너지보존 등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개발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의 역사적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여 역사도시의 아름다운 도시경관, 역사적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시스템을 발견하고 이를 보존 활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모색에 있다.

\* 정회원(주저자),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박사과정

\*\* 정회원(교신저자),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교수, 박사

1) 김영진(2002.5), 역사도시와 건축가의 역할, p.93



있어서 공간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모든 조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도시와 건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에서 종합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재료를 활용하여 조성되어진 도시는 그 지역의 독특한 색깔을 나타내며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자연의 거대한 힘에 적응하며 살았던 환경결정론에서 문명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연환경을 개조할 수 있다는 인간중도론적 생각으로 바뀌었다.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연이 인간이라는 생명체에 주는 생존 및 생활환경을 기술과 설비 수법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공해, 지구자원의 이용한계, 인간의 생존의 한계 등을 인식하면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상호작용론).<sup>6)</sup> 지구자원은 무한정하지 않다.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지구 인구와 인류발전은 건축과 도시의 개발필요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지구자원을 무한히 사용하므로써 지구가 인간을 포용할 수 있는 한계치에 근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인식은 개발지상주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개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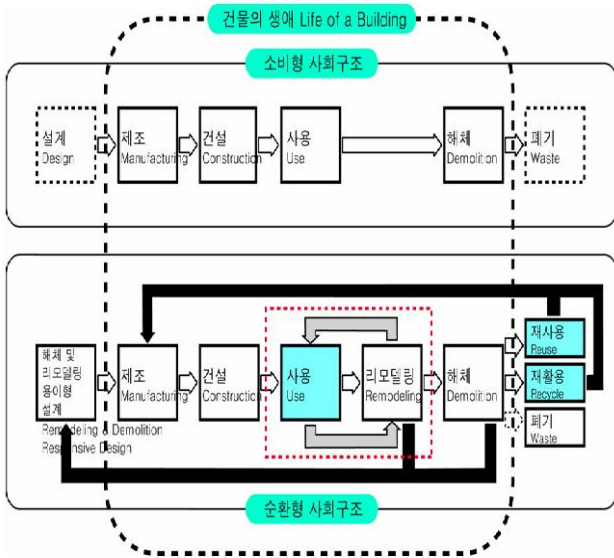


그림 3. 건물의 생애

위 그림은 건물을 짓는 순간부터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천연 자원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에너지, 자원 등의 순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는 건물의 수명이 다했을 때에도 우리는 건물을 해체하고 폐기하기 전에 재순환과정이 가능한 건축시스템의 채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건축물을 새롭게 재탄생 시킨다는 것은 도시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가치도 재평가 되고 있다.

위험시설, 혐오시설인 기름탱크를 활용한 공동주택과 폐공

장 지역의 건물을 재생하여 외관은 공장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공간의 변형을 통한 기존 건축물의 활용 활용방안은 기능이 폐지된 시설물을 가치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는 유익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림 4. 기름탱크,주거시설로 리모델링, 영국



그림 5. 프랑스 파리근교

#### IV. 도시건축디자인 실천 방안

##### 1. 도시설계 10대 원칙

왕립 도시계획가 협회 회장이기도 하고(1988년), 영국의 도시설계 운동의 주역이기도 한 프란시스·티블즈의 도시설계원칙 따르면 건축물의 형태·디자인 평가는 구체적으로 수치화 된 기준에 비추어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도시설계(urban design)라는 개념(concept)을 핵심으로 하여 형태,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평가되는 방향이 점점 강화된다.<sup>7)</sup>

사람들이 사용하고 점유하면서 이루어지는 공간은 근대 도시의 공간존닝이 아닌 혼합용도로서 생활문화의 지속성을 가지며, 그시대의 공간들이 혼합되면서 다양한 공간이 공존하는 장소에 시간적 공존의 장으로 존재하게 된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각기 부분이 다양한 역사와 도시의 숨은 얘기를 하게 되면서 도시의 생명은 문화로 확산된다.(표1참조)

표 1. 도시설계 10대 원칙

원칙	내용
1	사람들에 의해 나타난 공간
2	과거로부터의 학습과 상황(context)의 존중
3	혼합용도
4	높이 규제에 의한 휴먼·스케일과 가로차원의 친근감
5	아케이드, 중정 등 보행자 동선의 치밀한 조화
6	모든 연령층,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7	알기 쉬운 환경, 랜드마크, 전망, 건물 기능
8	수명이 긴 건물
9	통합과 규모의 규제에 의한 소규모 개발의 추진
10	색, 패턴, 장식, 기술 등의 축진

6) 손승광(2004), 나무심는 건축인 심포지움, 광주518기념관, 광주건축단체연합회 초청특강

7) 송인성 외1인 譯. 영국의 도시기본계획(Master plans). pp167-170



## 2. 재생 수법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고 있는 유럽의 도시형태를 보면 문화유지형, 문화 절충형, 새로운 문화로의 전환형태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8)</sup>

첫째, 문화 유지형은 로마와 하이델베르크 처럼 인습적인 범주에 머무르면서 기존의 전통적 유산이나 문화현상을 보존,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나 기존도시의 문화의 범위 내에서 현대적인 기능을 잘 소화해 냄으로서 도시를 관광 자원화 시키는 형이다.

둘째, 문화 절충형은 파리와 런던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와 새로운 이념의 절충을 시도하는 도시형이 있다. 도시의 발전과 현대적인 기능의 수용을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도시를 존중하는 맥락내에서 현대적인 도시를 생성해가고 있다.

셋째, 새로운 문화로의 전환형이다. 카프리와 소렌토 등 그 지역 특유의 전통과 문화를 충분히 재인식하면서 새로운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는 도시형이다.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하나 처음부터 역사와 전통과는 거리가 있고, 단지 휴식이라는 목적을 위해 형성되어진 건축물들의 조합은 시간과 장소성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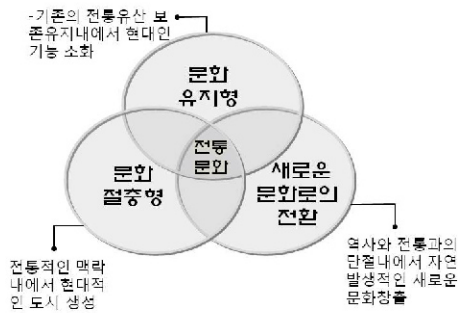


그림 6. 문화와 전통보존 도시형태의 다이어그램

각 지역의 문화와 자연조건을 고려한 도시는 오직 그 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색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면서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화와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들은 안게 되었다.

시대변화욕구에 대처하지 못한 도시와 시간과 장소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한 도시의 전통적인 가로 파사드와 도로체계, 그리고 외부공간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새로운 건축물과 지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철거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하나의 사회적 병리현상이면서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척도로 인식되었다.

### (1) 역사적 환경 내에서의 신축

8) 진영서 저(2004.10). 건축과 도시에서의 문화 및 전통.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세미나.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에서는 인접하는 건축물과 건축시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인접된 건축물과 어울리는 연속된 가로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서 오랜시간동안에 하나의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연속된 가로경관은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성을 강하게 전달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그림 8. 가로건축, 영국



그림 7. 도기즈 가나리 홀

일본의 도기즈 가나리 홀은 극장을 비롯 지역의 문화시설로서 용도상 규모가 큰 건물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존주변 환경이 저층주거지이어서 집지형으로 낮게 건축물의 볼륨을 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동안에 형성된 도시의 장소성을 살리는 건축으로 건축되어 있다..

### (2) 문화자원의 보존(메이지무라)

메이지무라는 나고야 근교의 지역에 메이지시대의 건축물을 집단적으로 이전하여 메이지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특별한 지역이다.

원래의 건축물의 입지는 아니지만 동일한 장소로 이전된 메이지시대의 건축물들은 하나의 공통된 시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적 자원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9. 메이지무라, 일본

건축물의 입지변화는 장소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왜곡된 것일 수 있으나, 한 시대 건축양식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적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점이 새로운 자원으로 탄생한 것이다.

## 3. 가로경관의 지속성과 건축 디자인

도시 내의 각 위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진 건축물의 다양한 디자인 형태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볼륨과 지붕형태를 비롯해 창호, 그리고 주변과 어울리는 재료의 사용 및 색채계획을 통한 도시전체의 통일감과 연속성을 부여해 준다.

도시전체를 구성하는 디자인은 각 지역의 특성과 대지 위치 및 가로와의 관계별로 다양하지만 도시, 블록, 모퉁이, 가로, 디테일로 구분해보고 어떻게 디자인 하는지 그 형태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증축, 리노베이션 등의 개발방향을 결정한다.

㉔ 관과 건축가, 건축주, 개발관계자와의 협의 하에 역사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로의 가로경관조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도시의 정체성과 지속적인 목표는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각 분야 관련자의 인적구성이 바뀌더라도 공동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지향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한 매뉴얼형의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의사 결정과정이 필요하다.

## V. 결론

본 논문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도심재생방안 검토, 개발과 경제성 위주의 도시개발로 잃어가는 도시에 역사성과 장소성 회복을 통한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역사도시의 구축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도시는 그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발전 계승시킴으로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적 가치를 지닌다.

둘째, 역사도시의 보존을 물리적인 특성에 국한하지 않고 장소와 시간, 그리고 공간적 질서체계를 고려한다면 보다 더 풍요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셋째, 역사도시환경처럼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 발전되어 온 역사도시환경은 도시를 재생하는데 있어서 건축물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재활용률이 높다.

넷째, 건축가로서 역사도시를 대변하는 가로건축 디자인 방안에 있어 가로의 연속성을 통한 주변과의 조화와 디자인 요소에 있어 도시적 접근방법이 역사도시를 더욱 풍요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앞으로 지역적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념적 연구보다는 창조적인 연구를 통한 결과와 평가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의 정체성 확보시스템을 축적해 나가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PAUL D. SPREIREGEN, AIA Urban Design: THE ARCHITECTURE OF TOWNS AND CITIES
2. 羅 祖 紀 都市建築空間, 1981. 3.
3. susumu takada, コーポラティブハウス 21世紀型の住まいづくり, 2003. 3.
4. EDWARD T.WHITE/조철희, 건축개념과 형태어휘, a vocabulary of architectural forms
5. 中井操裕·村木美貴 著, 宋仁城·李富貴 譯, 영국의 도시기본계획(Master Plans), 2000. 2.
6. Peter, G. Rowe 著, 디자인의 사고과정, 和泳社 1993. 8.
7. 심우석, 건축가 없는 건축, 1999. 8.
8. 趙大成, 趙容準 에드먼드·베이콘, 都市디자인 + 都市言語 1992. 9.
9. 손승광, "바이커 재개발 : R. Earskine의 설계 개념과 주민참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05.6

10. 김천학 외2인, "리모델링 사례 분석을 통한 經濟性 評價,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8권 6호 2002. 6.
11. 최병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원도시건축 세미나, 2002. 8. 발제문
12. 배용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설계의 역할, journal of the KGBC 0406 vol.5, No2
13. 김용일, 건축 디자인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공간 탐색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5호 2004. 5.
14. 오덕성 외1인, "독일의 도심재생을 위한 재개발사업 특성고찰" 물리적 계획요소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4호 2004. 4.
15. 견용수 외1인, 도시 규모별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2004. 10.
16. 최무혁 외2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유형과 특징에 관한 연구.
17. 한상연 외1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문화의 재발전
18. 진진영, 역사도시와 건축가의 역할. 청계천복원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장후보간의 논쟁을 보면서, 건축 voluntary contribution 2002. 5.